

Fred Putnam 박사, 시편, 강의 4

© 2024 프레드 퍼트넘(Fred Putna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Dr. Fred Putnam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발표입니다. 퍼트넘 박사.

네 번째 세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부 마지막 부분에 남겨두었던 내용으로 아주 간략하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괴롭히는 여러 시편의 질문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큰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3년마다 책임감 있게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시편 137편을 읽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가 건너뛴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비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생략했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은 후에 Gloria Patri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 어린 것들을 붙잡아 바위에 매어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말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글썄, 나는 그녀와 긴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꽤 불쾌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시편에 대한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5편처럼, 주님께서 창과 전투용 도끼를 들고 시편 기자를 쫓는 자들을 만나거나,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붙여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만들어 주님께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글썄요, 이에 대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것들이 하위기독교적인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초기 영성의 표현입니다. CS Lewis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마법을 믿고 그 말이 힘을 갖고 적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마법 세계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글썄,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것은 유효한 질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유익하고 선하고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유용하다면, 혹은 더 나은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면, 우리는 시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적의 멸망, 아니면 시인의 적, 시편 기자의 멸망? 글썄요, 제가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업을 매우 빠르게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빠른 제안 사항입니다.

첫째, 이러한 원수들의 멸망을 위한 기도는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마태복음 7:23)을 포함하여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행악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즉, 그들을 지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바울의 글에는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제단 아래 하늘에 있는 영혼들의 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피를 갚아 주실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해야 합니다. 그렇죠? 글썄, 그들이 완벽하다면 복수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에 저주가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적들에 대한 복수나 보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생각이 성경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왕국이 임하면 그 왕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멸망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헤어내기 힘든 컨셉이네요.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나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CS Lewis입니다. 비록 그는 이것이 하위 기독교 도덕의 표현이라고 말했지만, 또한 성경 시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종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일부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악 자체의 파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언은 모든 것이 동등하게 타당하고 실제적인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인데, 이 시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을 때, 그것은 너무도 틀려서 저주받아 마땅하고 파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시편 41:11이라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저주하는 시편이라고 불리는 다른 모든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결코 자신을 위한 능력이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이든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시편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자신감의 표현과 그들이 서원을 이행하거나 모임이나 다른 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가볍게 대하거나 모욕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시편에서 시편 기자의 원수는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결백을 항의하며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행한 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적 저주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하는 저주는 실제로는 저주가 아니며 심판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충실하시고 옳은 일의 원인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중 여러 가지를 볼 때 현재 특히 시편 35편이 생각납니다. 악랄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모르는 것을 나에게 묻는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까닭 없이 비방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19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범하지도 않은 범죄나 죄를 고발하면 그 고발자는 그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에는 일종의 언어적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시에서 들든 듣지 않든 비난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언약은 거짓 증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유죄인 사람이 받는 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주님께 당신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들을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주님,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나오는 저주, 즉 심판을 요구하는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공의의 본질도, 그분이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관계나 악인과의 관계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이 질문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기도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복수를 원하거나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했던 어떤 잘못에 대해 무언가를 원할 정도로 내 자신의 경험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카논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이루어져야 할 정의를 확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 시를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주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편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선 두 번째 강의에서 이미지에 관해 언급했던 이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미지로 무엇을 할까요? 몇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와 나의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31편 2절과 3절입니다. 속히 나를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다윗은 바위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암석학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칭찬하는 내용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위를 숭배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말장난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글썄,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때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은 어때요? 아, 나 지쳤어. 아니면 정말 피곤해요.

아니면 그냥 울 수도 있어요. 글썄요, 그냥 울 수도 있겠지만, 질문에 답한다면 죽은 게 아닙니다. 등에 줄무늬가 없다면 아마 당신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즉 은유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것, 즉 우리 마음이 우리의 감각 밖에 있는, 할 수 없는 것과 씨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선함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글쎄, 추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곧 질문을 하게 된다면 선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화에서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행동이 좋은가요? 아니면 이 행동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이 예술 작품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만지거나 볼 수 없는 것들을 붙잡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매우 빨리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도 이 모든 형상이 있으니 곧 바위요 요새요 구원하는 자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방패요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로다

갑소사, 이게 식료품 목록인가요, 아니면 무슨 일인가요? 음, 여기에 아주 짧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위, 요새, 바위와 같은 은유의 밑에는 훨씬 더 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은유, 즉 문학적 은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암벽입니까? 글쎄, 당신의 번역은 바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위는 들어올리거나 이동하거나 운반하거나 불도저로 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역동적 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사해 두루마리 사진을 본 적이 있고 그 와디가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다면 그 계곡이 바로 데이비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 위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물항아리와 창을 훔쳤을 때, 다윗은 길 건너편으로 갔다가 그와 사울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거리에 있다면 왜 사울은 다윗에게 몰래 다가가기 위해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걸까요? 다윗이 있었던 유대 광야에서 찍은 사진을

본다면 다윗이 이 길고 가파른 계곡을 돌아서 사람들을 멀리서 보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곡의 벽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오를 수 없습니다.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서 밧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활과 화살과 창과 단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있다면 확실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돌 몇 개를 굴러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바위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사울은 그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꽤 무거운 무기가 있어서 사거리가 상당히 짧은 투창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다. 그리고 밤이니까 누구도 총을 쏘거나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했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방금 다른 바위로 떠났습니다. 글썄, 그게 그가 말하는거야.

그가 요새에 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십자군의 성을 생각하지 않는 의미에서 요새가 아닙니다.

그곳은 견고한 곳, 자연적으로 쌓은 방어벽이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균열을 메울 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한 번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용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곳이 참된 피난처가 되었다고 그가 말하는 대로,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라. 또 다른 종류의 암석입니다. 이번에는 절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벽 꼭대기에 있다면 아무도 당신을 따라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패라도 방패 뒤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는 당신이 방패 앞이나 옆에 있거나 방패 소지자가 방패를 떨어뜨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가 당신이 곤경에 처한 때입니다. 혹은 키가 너무 커서 골리앗처럼 머리가 곳곳이 서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나의 요새요, 나의 성채라고 일부 번역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안전한 곳이라는 정말 멋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것은 기초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전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다윗은 안전한 장소, 낭떠러지, 바위, 요새, 견고한 진 등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방패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다르지만 동일한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시편 131편에서 근본적인 은유는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젖 떼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엄마 무릎은 어떤가요? 우리는 젖 떼 아이를 왜 젖 떼 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가 우유를 원하기 때문이죠.

아니요, 젖을 떼기 때문에 우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이나 보호, 껴안기 등을 위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유를 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밑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보세요, 오랫동안 이러한 용어로 은유를 생각하는 것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까? 글썄, 우선 우리가 말하는 바위가 어떤 종류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반석과 같은 분이 실까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은유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개별 진술이 전혀 개별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뿌리에서 나온 나무 가지이고 뿌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다양한 층위를 지닌 초고층 빌딩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은유, 기초, 그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멀리 아래로 건설해야 했는지, 얼마나 수백, 수백, 수백 대의 거대한 콘크리트 트럭이 내려와서 콘크리트를 버리고 더 많은 것을 위해 다시 올라갔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끝없는 행렬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기초가 있다면 그 위에 거의 모든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이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아말렉 사람들이 언덕을 넘어 와서 여러분의 집을 공격하여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파괴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노예로 삼아 갈지 여러분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동방 지파들, 암몬 사람들이나 모압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언제 올지 당신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새화된 도시에 살지 않습니다.

사실, 북미에 유일한 성벽이 퀘벡 시티인 것 빼고는 어디에도 성벽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프랑스 요새였을 때의 오래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은유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문화에서 의미했을 수도 있는 것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나 그 교회의 여성 네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은 부모, 아버지, 의붓아버지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이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상담사들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 권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그 일과 아무 관련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일 뿐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지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창입니다. 이걸 어때? 하나님은 안전한 곳이십니다. 글썄,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 아버지가 필요한 것보다 안전한 장소가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알게 되면, 언젠가 그들도 그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요, 왕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또는 판사.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유는 창문과 같지만 일반 창문과 달리 다가가서 머리를 내밀고 방 전체를 둘러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좁은 구멍을 통해서만 한 위치에서만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만 방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에는 5~6개의 창문이 있어서 방 전체를 볼 수는 있지만 방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모두 더해도 방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신은 무한한 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은유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은유를 적는다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은유적 가능성을 다 써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98편은 앞서 첫 번째 강의에서 세상의 기쁨이 바로 그것이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98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창조물은 박수와 예배, 노래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노래로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98편의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서 행하실 일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또한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이 그분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분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안전한 곳인 것처럼, 그 사람이 앞으로 있을 일, 지금의 사람, 앞으로도 그럴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David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한 장소에서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이, 거의 이, 이 안전의 교향곡에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 그의 목적의 일부는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글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신에 관한 것이 아닌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내 말은, 사람에게 대한 은유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먼지이고 식물입니다.

시편 90편과 같은 모든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모세는 아침에 새 움이 돋는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싹이 트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시들고 시들어 버립니다.

사람은 식물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곳이십니다.

사람은 식물입니다. 사람도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식물이다.

그리고 식물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식물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기를 멈추고, 죽고, 썩습니다. 이야, 사람 같지 않나요? 사실, 그가 사람을 식물, 아침에 자라는 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이미지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실제로 두 가지 서로 다른 기본적 은유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하루,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것이 당신이 얻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식물이다. 이제 우리는 돌발 홍수 후에 자라게 될 이스라엘 식물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라며 매우 빨리 싹이 납니다. 그리고 1~2주 지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수분을 받고 죽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하루는 은유적이지만, 그 하루는 삶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하루이고 하루가 끝날 때 우리가 잠에 든다면 아마도 죽음은 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죽음을 잠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죽음의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가 바로 죽음이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인생이 아니죠? 인생이 멈추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뭐? 글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잡이, 즉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글썄요, 제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하루이고, 손가락질해서 미안하다면, 인생이 하루이고 죽음이 잠이라면, 우리가 밤에 잠들 때 당신과 나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고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위로는 부활이다. 새로운 날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더 이상의 밤이 없을 새로운 종류의 낮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관한 약간의 퀴즈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죽은 자의 도시인 네크로폴리스에 죽은 자의 장사를 지냈고, 네크로스는 죽은 자의 도시인 파울루스의 도시에 장사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초대 교회 교부님은 이 인용문이나 설명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죽은 사람을 네크로폴리스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을 공동묘지, 즉 막사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장군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전쟁터로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잠만 자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묘지에 묻히는 이유입니다. 동일한 단어는 네크로폴리스가 아닌 그리스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인생을 하루, 죽음은 잠으로 비유하는 것은 보스턴의 도시 지하에 있는 큰 발굴과 같습니다. 터널이 완성되면 아무도 그 터널이 표면 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초고층 빌딩의 거대한 기초와 같지만, 그것이 없으면 초고층 빌딩은 무너집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몇 시간이고 며칠 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을 간략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은 매우 친숙한 시편이라는 것을 압니다. 몇 가지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합쳤을 때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은 매우 유명하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세 문장은 영어에서도 평행하며 히브리어에서도 평행합니다.

약간의 교차가 일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행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형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사실 분명히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경우에는 1절에 포함된 비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사실 약간의 오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보통 좌석으로 번역되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인 moshav는 앉다를 뜻하는 동사 yashav 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명사의 흥미로운 점은 한두 번만 좌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의 사람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거지 또는 주거지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앉다로 번역된 동사는 거주하다, 정착하다, 거주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럼 1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마도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여행이고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 끝나는 곳이 다르다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행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갈 예정이라면 보통은, 음, 오늘은 구글에 가서 온라인 지도를 검색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검색해서 하지요. 지도를 보거나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스크랜틴이나 그 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거기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글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시작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그분은 악인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조언, 조언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여정에서 그런 조언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인들이 가는 길, 죄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할 곳에 도착하더라도, 그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정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말은, 자리에 앉는 것과 앉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글썄, 내 생각에 앉아 있는 것은 은유의 요점을 없애고 은유를 무디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여행이라는 은유는 우리가 여행 중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생이 여행이라는 근본적인 은유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요 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열망, 실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성취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의 사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 당신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여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가 진짜 우회로를 택했거나 그 직업이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녀가 가는 길에 과속 방지턱을 부딪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에서 끝나기를 바라나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가시나요? 인생이 여행이라는 생각은 우리 사고방식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유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시에 관한 책을 읽으면 시를 더 잘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높이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에 관한 책을 읽으면 죽은 은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은유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은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은유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죽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냥 물속에 잠겨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죽은 것처럼 보일수록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더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은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1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6절을 보면 6절이 이렇게 끝나거나 시가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거나 멸망하거나 멸망하리로다. 인생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삶의 방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실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의 은유는 처음의 은유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편 113편에서 본 것과 같은 포함형 이지만 매우 다른 종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것은 동일한 기본 은유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그는 매우 흥미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이제 여기에 히브리어 내용을 섞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단지 일종의 방식입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면 시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글쎄,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감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남은 생명이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온갖 종류의 어린 3살, 4살 아이들이 예루살렘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3살, 4살 때 할 수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똑똑한 알렉 진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실제로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는 분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단어의 내용, 즉 의미론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전에 가서 찾아보면 주님의 율법에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차이가 아주 큼니다.

음, 히브리어에서는 매우 자주 영어 번역에서 동사 is 또는 was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볼 때 거기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2절 A행에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절에는 동일한 동사가 있는 세 개의 절이 있고 2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즉, 와, 변화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불연속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후반부에서 기쁨이라는 동사를 발견하면 이는 동사의 다른 활용형입니다.

그것은 동사의 다른 종류의 다른 형태입니다. 따라서 2절은 내용뿐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구별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글쎄, 내가 그걸 영어로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어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 중 일부는 눈에 보이고, 일부는 보이지 않으며, 일부는 보고 있는 번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번역은 다른 요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명상하거나 중얼거리거나 반복하거나 중얼거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번역하자면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다로 번역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숨죽여 무언가를 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은 1절과 2절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유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은유는 사람이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풀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을 나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번역이 있습니다.

이 번역판에서는 당신이 시냇가에 굳게 심어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 굳건히 심었다고 번역된 동사는 성경에 몇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것은 식물의 한 부분을 가져다가 옮겨서 다른 곳에 심는 것, 또는 우리가 이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무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 문장, 이 절에 대한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streams, or you might have channels 등으로 번역된 단어가 일반적으로 canal로 번역되거나 도랑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개용으로 사용되는 하천입니다. 즉, 자연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개울이나 개울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 놓은 도랑으로, 있는 곳에 설치하고 만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뭔가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비유를 확장합니다. 그러면 왜 제철에 열매를 맺습니까? 왜냐하면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절의 잘못된 인생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 2절의 가르치는 여호와와 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그것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심겨졌으니 자라서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날씨의 변화와 변덕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거기 있으면, 제때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약간의 문화적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북미에서는 사과나무가 매년 가을마다 잎사귀를 잃습니다. 복숭아나무도 마찬가지로 굴나무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열대 지방이나 더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감귤나무와 같은 다른 종류의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나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과일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들은 모두 녹색을 유지합니다. 일년 내내. 그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고 해서 겨울이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들지 않을 만큼 물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잎이 시들면 나무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문화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는 행위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에 이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근본적인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정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저기에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백향목을 심으신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친숙하게 들리나요? 내 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가지들은... 그래서 그 이미지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제가 구체적인 은유보다는 근본적인 은유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정말 흥미로웠던 점입니다.

근본적인 은유는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 길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밑에 있는 이 기초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그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건 그렇고, 정원사로서 하나님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기본 비유가 있습니다. 정원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종류의 다른 역할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며,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사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존재이십니다. 자, 시편 1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잠시 동안 그것의 신학에 대해 논쟁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로서는 정말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강의에서 제가 실제로 시편을 신학화하거나 적용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과 적용이 본문과 시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자의식적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본문 자체에서도 그것이 말하는 방식, 즉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신학을 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종의 인상을 앗아갔습니다. TS Eliot의 균형 잡힌 행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3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는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John이 Bill에게 공을 던졌거나 John이 Bill에게 공을 던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것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동사를 be로 취하고 다른 동사 앞에 그것의 형태를 붙입니다. 정말 조잡하지만 그런 생각이군요.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모음을 조금 변경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조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 대 달리기, 수영 대 수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음을 바꾸지만 동사 시제를 바꾸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어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를 알면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모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을 변경하고 앞뒤에 문자를 추가하여 동사의 기능을 변경합니다.

글쎄요, 시편 1편에 있는 동사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동사는 우리가 어간이라고 부르는 동사입니다. 즉, 모음의 기본 패턴이 동일합니다. 예외는 3절 끝에 나오는 이 동사입니다. 이유와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형태로 인해 나머지 동사들 중에서 눈에 띄는 동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는 우연히 이 축복받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의 첫 부분 끝에 나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불연속성입니다. 영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 중단은 우리가 3절과 4절이라고 알고 있는 3절과 4절 사이의 중단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실제로 시편의 문법 구조, 즉 시 자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계속해서 악인을 왕겨, 즉 다른 종류의 식물, 즉 당신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이 식물이라는 생각을 다시 포착합니다.

당신은 바람이 그것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끈적거리고 가렵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밀밭 뒤에 서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약간 추측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스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제로 일어서려고 하는 걸까요? 당신이 결백하다면 법정에 섰다는 뜻인가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판사가 있다는 것, 어쩌면 신이 판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피고인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 위해 비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그림으로 돌아옵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어에서 이 구절은 그러한 교차점 중 또 다른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사, 동사, 그리고 사실 뭐가 이렇게 멋진지 이걸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6절의 시작 부분에서 사용하는 동사 형태는 다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분사입니다.

좋아요, 모음이에요, oe. 요데아. 그가 마지막에 사용하는 동사는 분사가 아닌 동일한 모음인 tovade 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분사를 사용하는 걸까요? 사실, 그것은 그가 시편 전체에서 사용한 두 번째 분사일 뿐입니다. 사실, 그것은 유일한 술어 분사, 즉 시편 전체에서 동사로 사용된 유일한 분사입니다. 왜 그는 불완전형이나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것 대신에 분사를 사용하고 마지막 절에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길과 멸망하는 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리가 똑같기를 바랐던 걸까요? 저는 진짜여야 합니다. 모음이 훨씬 나중에 추가되기 때문에 저는 불안정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참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 우리는 그것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닫겠습니다. 2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시를 읽어 주고 나서 이 시를 이해하기 시작하기까지 3년 동안 이 시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읽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가 지은 것입니다.

19세기의 또 다른 훌륭한 기독교 시인인 제라드 맨리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의 다른 글들도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의 존재는 속도를 늦추고, 생각하고, 반영하고,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것이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둘째, 일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강요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평행성, 구조, 장르 등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한 줄 한 줄 빈 줄로 종이에 시를 쓴 뒤 그냥 바라보고, 한 달 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인내심이 없으면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메모를 시작하세요.

'아, 이 단어가 그 단어처럼 들리네요'라고 말할 때마다 색연필을 사용하여 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연결점을 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어날 일은 텍스트의 아름다움이 메시지의 아름다움이기도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특권을 누리는 축복,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제가 읽은 시입니다. 약 3년 동안 읽고 또 읽다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외운 후에야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재림. 점점 넓어지는 환류 속에서 매는 매 사냥꾼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무너집니다.

센터는 버틸 수 없습니다. 단순한 무정부 상태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피가 흐려진 조수가 풀리고 모든 곳에서 순결의 의식이 익사합니다.

최고의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최악의 사람은 열정적인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계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확실히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재림. Spiritus Mundi의 거대한 이미지가 내 시력을 어지럽힐 때 그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막의 모래 어딘가에, 사자의 몸과 사람의 머리를 가진 형상, 태양이 느린 허벅지를 움직이는 동안 멍하고 냉혹한 시선, 그 주위에는 모두 분개한 사막 새들의 실제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시 어둠이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20세기 동안의 돌 같은 잠이 흔들리는 요람 때문에 악몽으로 변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거친 짐승이 마침내 그 시간을 맞이하여,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을 향해 구부정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